

# 공연예술분야 종사자는 예술인인가, 노동자인가

이 승 열\*

## I. 연극배우들은 이슬 먹고 사니? 이게 너는 자랑스럽니?

“모 연출가가 작년, 제작년에 공연을 하는데 전문극단으로서 자기네가 이걸 한다는 거예요. 두 달 연습에 한 달 공연인데, 대표라는 애가 선배님, 300만 원 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야. 너 300만 원 가지고 한 달 사냐. 애 둘 키우면서. 연극배우들은 이슬 먹고 사니? 이게 너는 자랑스럽니?”(어느 연극배우 ㄸ씨, 2007년 3월 면담에서)

공연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이 어느 정도의 소득을 벌고 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임금 통계가 부분적으로 작성되고 있다고는 해도 표본수가 통계적 신뢰성을 확보할 만큼 충분하지 않거나 모집단에 기초한 표본추출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2007년 한국노동연구원이 『공연예술 전문인력구조와 정책지원 - 연극뮤지컬을 중심으로』라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극과 뮤지컬에서 활동하는 배우, 연출가, 극작가, 스태프 등의 종사자 273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sup>1)</sup>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158.3만 원, 시간당 임금은 14.5천 원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황준욱 외, 2007). 이 통계는 글머리에 인용한 어느 연극배우의 이야기가 결코 거짓이 아님을 전달하고 있다.

시간급이 14.5천 원이라면, 2007년의 최저임금이 3,480원임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의 4배에 이르는 만큼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공연예술분야 종사자의 사회경제적 지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yeesy@kdi.re.kr).

1) 앞으로 이 조사를 ‘실태조사’라 줄여 부르기로 한다.

위는 낮은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월평균 임금이 158.3만 원이라는 사실은 결코 이와 같은 생각을 지지하지 않게끔 한다. 조사 시점이 비슷한 2007년 상반기 5인 이상 비농 전산업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2,575천 원이었음을 볼 때, 공연예술분야 종사자가 어떠한 조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쉽게 짐작하게 될 것이다(노동부, 2007).

공연예술분야 종사자는 예술세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동시에 영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예술 활동과 경제적 활동이 병행된다. 예술 활동이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의 수입을 수반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으나 예술 활동으로 충분한 생활을 경영할 만큼 소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은 앞의 간단한 수치에서도 확인된다.

그렇다면 예술 활동과 경제적 활동에 자신의 시간을 분배하여 투입하여야 하는 이들은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는 것일까? 수입은 많지 않아도 예술 활동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에 스스로 예술인이라 생각을 하는 것일까? 경제적 생활을 위한 노동에 적지 않은 시간을 소비하여도 대본이나 악보를 가방에 챙겨 넣은 자신을 예술인이라 생각하는 것일까? 공연예술분야에서 일을 하면서도 무대에 서는 일 없이 오로지 무대 뒤에서 일하는 자신을 노동자라 생각하는 것일까? 안정적인 수입은 보장되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자신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 생각하는 것일까?

이와 같은 물음을 앞서 말한 공연예술분야 종사자 273명에게 던져보았다. 이 글은 이들의 응답에서 얻은 결과에 기초하여 공연예술분야 종사자들은 자신의 직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종사자가 지닌 특성이 이와 같은 직업인식에 어떠한 연관을 내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 II.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사실

실태조사에서는 공연예술분야 종사자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나는 예술이다”, “나는 노동자이다”, “나는 자영업자이다”. 이 세 가지 정의에 응답자가 0점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로 응답하되 자신이 해당하는 정의에 가깝다고 생각할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자신이 오로지 예술인이라고만 생각한다면, “나는 예술이다”에 10점이나 9점 등 10점에 가까운 점수를 부여하고, “나는 노동자이다”와 “나는 자영업자이다”에 상당히 낮은 점수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동자나 자영업자라 생각하는 공연예술분야 종사자는 이와 반대의 결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해서 실태조사는 예술인, 노동자, 자영업자 등 어느 한 가지 정의로만 한정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 이 세 가지 질문 각각에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자신이 예술인이면서 노동자이기도 하다라거나 예술인이면서도 자영업자라는 중복된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말하자면 직업을 예술인, 노동자, 자영업자라는 세 가지 축의 3차원에서 표현하도록 한 것이다.

### 1. 절반은 예술인의 피가 흐르는 공연예술분야 종사자

응답 결과는 <표 1>에 나타나 있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먼저 공연예술분야 종사자는 스스로 예술인이라 생각하는 편이라 하겠다. 이 표를 보면, 평균적으로 예술인에는 7.45점을 부여하고 있어 예술인이라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아울러 노동자에는 4.69점, 자영업자에는 2.96점을 부여하고 있다. 말하자면, 자영업자라는 질문에는 고개를 가우뚱하나 노동자라 한다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정도라 해석해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평균 점수이므로 공연예술분야 종사자의 평균적·대표적 이미지라 하여도 좋을 것이다.

만일 직업에 대한 인식이 어느 한쪽으로 한정된다면, 세 질문의 합계는 10점 언저리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술인이라 한 경우에 예술인에는 10점 그리고 나머지 두 항목에는 0점에 가까운 점수를 부여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에서 이들 세 질문의 합계를 얻어 보면, 평균이 15.11점이다. 평균 점수가 10점을 넘어서는 결과는 공연예술분야 종사자들이 어느 한 가지 정의만으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뜻한다. 말하자면, 공연예술분야 종사자들은 세 가지 정의를 배타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정의의 상관계수를 얻어 보면, 예술인과 노동자 사이에는 상관계수가

<표 1> 직무별 공연예술분야 종사자의 자기인식

(단위: 명, 점)

	표본수	예술인	노동자	자영업자	합 계
공연기획·제작	44	6.32(3.06)	5.57(2.96)	2.98(3.61)	14.86(5.60)
창작 스태프	55	9.00(1.70)	3.93(3.63)	3.80(3.96)	16.73(6.42)
출연자	91	8.24(2.20)	4.70(3.49)	3.08(3.61)	16.02(6.58)
기술 스태프	37	6.35(2.79)	4.70(3.20)	2.43(2.99)	13.49(5.19)
공연운영 스태프	16	3.50(2.78)	4.50(3.16)	1.19(2.17)	9.19(5.59)
교육·평론	10	7.20(2.82)	5.20(3.82)	2.00(2.98)	14.40(6.67)
전 체	253	7.45(2.82)	4.69(3.39)	2.96(3.54)	15.11(6.34)

주: 1) 수치가 높을수록 본인이 그렇다고 생각하며, 수치가 낮을수록 그렇지 않다고 생각함(최저 0점, 최고 10점).

2)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편차를 나타냄.

3) 합계는 예술인, 노동자, 자영업자의 인식점수를 합산한 수치임.

-0.0883이며, 예술인과 자영업자 사이의 상관계수는 0.1773, 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상관계수는 0.2772이다. 따라서 우리의 추측이 그다지 틀리지 않았음을 상관계수 추정 결과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이 결과로부터 평균적인 공연예술분야 종사자를 상정해 보기로 하자. 이는 평균 점수인 15.11점을 100%라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평균적인 공연예술분야 종사자는 자신의 49%는 예술인, 31%는 노동자, 20%는 자영업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는 결과를 보인다.

## 2. 공연을 하는 예술인, 공연을 기획하는 노동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연예술분야 종사자들은 어떤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지에 따라 인식이 다를 수 있다. 이를 살펴보면, 먼저 예술인의 경우에는 창작 스태프와 출연자의 평균 점수가 높은 편이다. 각각 9.00점과 8.24점이다.<sup>2)</sup> 이와는 달리 공연운영 스태프는 3.50점을 부여하여 최저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 결과는 공연운영 스태프가 자신을 예술인이라 생각하는 성향이 낮음을 뜻한다. 기술 스태프나 공연기획·제작은 각각 6.35점과 6.32점으로 예술인에 가깝긴 하나 정도는 창작 스태프와 출연자의 평균 점수보다 떨어진다.

다음으로 노동자의 경우에는 공연기획·제작(5.57점)과 교육·평론(5.20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창작 스태프(3.93점)는 낮게 나타난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경우는 창작 스태프(3.80점)와 출연자(3.08점)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공연예술분야 종사자들은 담당하는 직무에 따라 자신을 예술인, 노동자, 자영업자라 각각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앞의 <표 1>을 보면, 합계 점수도 직무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합계 점수로는 창작 스태프(16.73점), 출연자(16.02점), 공연기획·제작(14.86점), 교육·평론(14.40점), 기술 스태프(13.49점), 공연운영 스태프(9.19점)의 순이다. 합계 점수가 높다는 것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의로 자신을 규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대로 공연운영 스태프의 경우는 어느 하나의 정의로 자신을 규정하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어떤 정의로도 자신을 규정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다.

2) 교육·평론도 평균 점수가 7.20점으로 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나 10명이 응답하고 있어 통계적 신뢰도는 낮다.

### 3. 다중인격에 가까운 공연예술분야 종사자

관점을 바꾸어 해당하는 정의에 0~3점을 부여한 경우는 해당하는 정의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4~6점을 부여한 경우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7점 이상을 부여한 경우는 긍정으로 간주하였다. 말하자면, 예술인에 7점 이상을 부여하면 스스로 예술인이라 인식하는 것이며, 3점 이하를 준 응답자는 스스로 예술인이 아니라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에 따라 응답점수를 분류하여 공연예술분야 종사자를 재구성한 것이 <표 2>이다.

이 표를 보면, 전체 27개의 셀에 23개나 채워져 있어 앞의 상관계수 결과가 나오게 된 까닭을 짐작하게 된다. 말하자면 예술인, 노동자, 자영업자라는 세 축으로 구성된 3차원의 세계에서 어느 한쪽으로 응답자들이 치우치질 않고, 균데균데 퍼져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공연예술분야 종사자의 특성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표에 주목하여 보기로 하자.

먼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집단이라 한다면, (예술인, 노동자, 자영업자) = (7~10점, 0~3점, 0~3점)이다. 이들은 자신을 예술인으로 생각하나 노동자나 자영업자라고 생각하는 성향은 상당히 낮다고 할 수 있다. 이 집단이 응답자 전체의 21.6%에 해당한다. 말하자면, 공연예술분야 종사자의 2할 정도는 오로지 자신을 예술인이라고만 생각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예술인, 노동자, 자영업자) = (7~10점, 7~10점, 7~10점)으로 이 집단은 응답자의 16.1%이다. 이들은 자신을 예술인이자, 노동자이자, 자영업자로 생각하고 있다. 소득원천이 안정적이지 못하여 여러 직업을 전전하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일 수도

<표 2> 공연예술분야 종사자의 자기인식 분류별 구성

(단위: 명, %)

노동자	자영업자	예술인		
		0~3점	4~6점	7~10점
0~3점	0~3점	8(2.93)	9(3.30)	59(21.61)
	4~6점	-	1(0.37)	5( 1.83)
	7~10점	-	2(0.73)	13( 4.76)
4~6점	0~3점	6(2.20)	13(4.76)	20( 7.33)
	4~6점	1(0.37)	11(4.03)	13( 4.76)
	7~10점	-	1(0.37)	7( 2.56)
7~10점	0~3점	11(4.03)	12(4.40)	24( 8.79)
	4~6점	-	1(0.37)	6( 2.20)
	7~10점	1(0.37)	5(1.83)	44(16.12)

주: 괄호 안의 수치는 응답자 전체의 백분율을 나타냄.

있으며, 독특한 개성이나 인식의 표현일수도 있을 것이다.<sup>3)</sup>

세 번째로 높은 구성비를 보이는 집단은 (예술인, 노동자, 자영업자) = (7~10점, 7~10점, 0~3점)으로 이들은 예술인이자 노동자로 인식하나 자영업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7.3%는 (예술인, 노동자, 자영업자) = (7~10점, 4~6점, 0~3점)인 집단으로 예술인이라 생각하나 자영업자는 아니라 생각하며, 노동자라는 정의에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 4. 직업인식에 따른 공연예술분야 종사자의 특성

<표 2>의 내용을 다시 분류하여 예술인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예술인은 7점 이상,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모두 3점 이하), 노동자라 생각하는 사람(노동자는 7점 이상, 예술인과 자영업자 모두 6점 이하), 예술인이자 노동자라 생각하는 사람(예술인과 노동자는 7점 이상, 자영업자는 6점 이하), 예술인이자 자영업자라 생각하는 사람(예술인과 자영업자는 7점 이상, 노동자는 6점 이하), 예술인이자 노동자이자 자영업자라 생각하는 사람(모두 7점 이상)<sup>4)</sup>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 내용이 <표 3>이다.

이 표를 보면, 예술인이자 자영업자라 생각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높은 편이며, 반대로 노동자라 생각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낮은 편이다. 이 특성은 경력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예술인이자 자영업자라 생각하는 사람들의 평균 총소득이 가장 높아 월평균 약 285만 원을 벌어들이고 있다. 이들은 공연분야에서나 공연 이외의 분야에서 얻는 소득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높은 편이다. 이외는 달리 노동자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총소득에서는 두 번째 수준이나 이들은 주소득원이 공연 이외의 분야이다. 총소득에서 낮은 편에 속하는 것은 예술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예술인이자 노동자이자 자영업자라 생각하는 사람이다.<sup>5)</sup>

3) 이 결과와 맞아떨어지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느 뮤지컬 작곡가와 면담하였을 때, “주위 분들한테 내가 창작 뮤지컬에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그 작곡가는 “저는 집에서 놀아요. 이래요.”라 대답하였다. 이 말은 스스로 미취업자라 표현하는 것으로 그만큼 사회의 인식에서 예술인이 자유롭지 못함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4) 자영업자라 생각하는 사람(자영업자는 7점 이상, 예술인과 노동자는 6점 이하)과 노동자이자 자영업자라 생각하는 사람(노동자와 자영업자는 7점 이상, 예술인은 6점 이하)도 고려하여야 하나 이들은 표본수가 극히 적어 제외하였다.

5) 어떤 연극관련 협회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이 면담은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시점에 진행되었으므로 아마 다른 조사에 응답하면서 느꼈던 상황이었던 듯하다). “설문조사하면서 항목이 있었어요. 당신은 스스로 노동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인식 자체를 바꾸려고 그리고 당신이 노동자라면 노동의 댓가를 얼마만큼 받고 싶습니까? 이런 거. 근데 아무도 자기가 노동자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이 바닥에 있는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급여나 월급을 받고 일하

&lt;표 3&gt; 자기인식별 공연예술분야 종사자의 특성

(단위: 세, 년, 만 원, 점)

	예술인	노동자	예술인/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	예술인/ 노동자/ 자영업자	기타	전체
연령	35.24 (13.55)	33.46 (7.93)	34.97 (9.09)	45.50 (12.27)	39.13 (10.98)	34.00 (9.83)	35.75 (11.26)
경력	11.75 (10.25)	5.38 (4.54)	10.37 (9.19)	20.20 (13.63)	14.25 (11.31)	8.42 (7.86)	10.50 (9.88)
공연분야 소득	77.41 (95.88)	92.63 (90.29)	89.90 (88.14)	172.55 (240.77)	79.67 (108.27)	91.93 (109.75)	92.77 (118.46)
공연이외 소득	70.05 (140.80)	121.25 (327.10)	71.23 (125.22)	112.30 (132.57)	60.63 (72.21)	69.94 (136.00)	73.08 (154.23)
총소득	147.46 (175.51)	213.88 (311.27)	161.13 (124.94)	284.85 (297.78)	140.29 (129.26)	161.86 (164.93)	165.84 (189.81)
전반적 만족도	3.71 (0.79)	3.42 (0.78)	3.50 (0.78)	3.90 (0.79)	3.83 (0.64)	3.64 (0.82)	3.67 (0.79)

주: 경력은 연단위로 계산한 수치이며,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편차를 나타냄.

흥미로운 점은 노동자라 생각하는 사람의 전반적 만족도가 평균적으로 가장 낮다는 사실이다. 이들도 평균 점수가 3.42이므로 만족하는 편에 가깝다. 하지만 예술인이라는 인식이 명확한 사람들과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 Ⅲ. 그리고 그들은 행복한가?

지금까지 공연예술분야에서 종사하는 공연예술인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예술인, 노동자, 자영업자라는 세 가지 정의의 틀에서 규정하여 보았다. 여기에서는 공연예술분야 종사자는 공연예술분야에서 일하는 것에서 행복을 얻고 있는지,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일반인으로서 행복하다고 느끼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자신의 직업인식에 따라 행복감이나 고민에서 공연예술분야 종사자는 차이를 나타내는지도 아울러 알아보기로 하자.

는 사람은 예술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작 그런 예술을 하는 사람을 이끌어가고 좀더 환경을 만드는 사람은 월급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고 제대로 된 정당한 급여를 받는 게 맞아요. 어떤 일을 하건. 무리하게 바라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실태조사에서 “나는 공연인으로서 행복하다”, “나는 일반인으로서 행복하다”, “나는 공연예술과 관련하여 고민을 가지고 있다”를 질문하고, 전혀 그렇지 않으면 0점, 전적으로 그러하다면 10점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응답결과를 나타낸 것이 <표 4>이다. 이 표는 평균 점수를 나타낸다.

결과를 보면, 먼저 공연예술분야 종사자는 공연인으로서 행복하다에 7.59점을 주고 있어 긍정적인 대답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동시에 공연예술과 관련하여 깊은 고민에 있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평균 점수가 8.00점에 이르기 때문이다. 적어도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고민과 행복이 별개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달리 말한다면, 공연예술에 종사하면서 고민도 많지만, 그만큼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직무별로 공연인으로서 느끼는 행복감을 살펴보면, 창작 스태프(8.24점), 출연자(7.85점), 교육·평론(7.60점), 공연기획·제작(7.40점), 기술 스태프(7.24점), 공연운영 스태프(5.45점)의 순이다. 창작에 가까운 직무인 경우에 행복감이 높고, 기술 스태프나 공연운영 스태프 등 매개 인력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행복감이 낮은 편이다. 이는 공연예술분야에서 느끼는 고민의 정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자신을 예술인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행복감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예술인 인식점수와 행복점수 사이에 상관계수가 0.5270에 이른다. 예술인 인식점수와 고민점수 사이의 상관계수는 0.4643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표 4> 공연예술분야 종사자의 행복

(단위 : 점)

		관찰치수	공연인으로서 행복	일반인으로서 행복	공연예술과 관련하여 고민
전 체		273	7.59(2.32)	6.14(2.81)	8.00(2.40)
직무	공연기획·제작	47	7.40(2.25)	6.96(2.17)	7.72(2.58)
	창작 스태프	59	8.24(1.78)	6.32(3.20)	8.63(2.23)
	출연자	99	7.85(2.25)	5.56(2.92)	8.35(2.00)
	기술 스태프	38	7.24(2.25)	6.29(2.60)	7.76(2.31)
	공연운영 스태프	20	5.45(2.68)	6.55(2.39)	5.45(3.05)
교육·평론	10	7.60(3.20)	5.70(2.75)	8.20(1.93)	
예술인	7~10점	186	8.26(1.87)	5.99(2.94)	8.62(1.87)
	4~6점	58	6.64(2.08)	6.62(2.28)	7.29(2.21)
	0~3점	29	5.17(3.05)	6.17(2.87)	5.45(3.54)
노동자	7~10점	91	7.52(2.53)	6.20(2.96)	8.21(2.51)
	4~6점	77	7.06(2.15)	6.21(2.36)	7.82(2.00)
	0~3점	105	8.03(2.17)	6.05(3.00)	7.96(2.56)
자영업자	7~10점	58	8.07(2.27)	6.88(3.10)	8.36(1.94)
	4~6점	40	7.35(2.02)	6.03(2.02)	8.48(1.63)
	0~3점	175	7.48(2.38)	5.93(2.84)	7.78(2.65)

주: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편차를 나타냄.

하지만 노동자라는 자아인식이 낮은 경우에 공연인으로서 느끼는 행복감이 높은 편이나 자영업자라는 자아인식이 강할 때는 동시에 공연인으로서 느끼는 행복감이 높다. 이들은 예술인의 자아인식이 강한 종사자들과는 달리 어떤 특성을 보이지 않는다.

일반인으로서 느끼는 행복감은 공연인으로서 느끼는 행복감과 비교할 때 떨어진다. 평균 점수가 6.14점으로 5점을 보통이라 한다면, 보통 수준보다는 약간 높은 편에 드는 행복감이라 할 것이다. 직무로서는 출연자가 일반인으로서 느끼는 행복감이 가장 낮으며, 공연기획·제작이 가장 높다. 예술인이라는 자아의식이 강한 경우에 일반인으로서 느끼는 행복감이 낮으며,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자영업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일반인으로서 느끼는 행복감은 낮은 편이다.

#### IV.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가?

공연예술분야 종사자는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실태조사에서 질문한 결과를 보면, 예술인으로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노동자로, 때로는 자영업자로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예술인-노동자-자영업자라는 정의는 상호배타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예술인에 대한 인식을 가지면서도 노동자나 자영업자라는 인식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연예술분야 종사자는 공연인으로서 행복하다는 긍정적인 인식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동시에 공연예술과 관련하여 깊은 고민에 있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이와는 달리 일반인으로서 느끼는 행복감은 공연인으로서 느끼는 행복감과 비교할 때 떨어진다.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한다면, 공연예술분야 종사자들을 목표집단으로 하는 정책 수립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 정책이 노동자를 주요한 정책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노동자라는 성격을 부정한 채 자신을 자영업자로 인식하는 공연예술분야 종사자에게는 정책이 의도하였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술인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도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인식의 차이에 기초하여 해당 집단을 분리해서 정책 적용을 시도한다는 대안도 결코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인식이 다르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정책 대상을 격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설령 분리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자칫 동료간의 이해관계를 악화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이 경우 정책 당국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로 끝날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정책의 효과가 상쇄되거나 전혀 없다고 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바람직한가? 불규칙한 저수입이 수반하는 생활의 불안정이 능력과 열정을 갖춘 인재의 이탈은 공연예술분야에서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일어날 것이며,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다. 이전에 ‘예술인’이라는 자부심으로 보상적 격차(compensating differences)를 정당화하기에는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될 만큼 공연예술분야 종사자 노동시장은 변화하고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내고야 마는 지원은 장기적으로 공연예술분야의 성장에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최근 노동시장 정책이 노동법으로 보호되는 노동자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른바 영세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동자라 부정하기도 긍정하기도 어려운 유형의 취업자에게 노동시장 정책의 수혜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최근의 정책적 시도가 공연예술분야에서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가 아닌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접근이 스스로 노동자라 생각하면서도 자영업자라 생각하기를 부정하지 않는 공연예술분야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수혜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느 연극영화과 교수와 가진 면담에서 그 교수가 힘주어 한 말을 끝으로 글을 마감하고자 한다.

“과거에도 우리나라 체육이나 예술인들이 중요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부턴가 끊어져 버린 그만큼 존경받지 못하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만큼 또 중요하고.” **KL**

#### <참고문헌>

- 노동부 노동통계팀(2007), 『2007년 상반기 임금, 근로시간 동향』.  
 황준욱 외(2007), 『공연예술 전문인력구조와 정책지원 - 연극뮤지컬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